

광주시, 유망기술 보유 청년창업기업 성장 돕는다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올해 첫 도입 청년창업기업 4곳 선정... 시제품 제작 등 성장자금 최대 7000만원

광주시가 유망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들이 지역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15일 "2024년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에 청년창업기업 4곳을 최종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기술고도 성장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보육시설인 아이플렉스 광주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광주지역 청년 초기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주시는 앞서 올해 초 기술력·사업성 등이 우수한 청년창업기업을 공개 모집해 20개사가 아이플렉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으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IR) 평가대회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7월 4차례에 걸친 평가대회에서 창업기획자(AC)·투자자(VC) 등 11개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기업역량, 사업성, 투자가능성 등의 평가를 거쳐 유망기술 보유 청년창업기업 최종 4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기업은 ▲감염 및 의료사고 예방용 '소변컵'을 개발한 '튜비콘' (대표 박제현) ▲가상 옷차림 기능이 있는 패션 플랫폼 개발기업 '주식회사 SPACE AI' (대표 김현규) ▲재고의류를 활용한 의류제조기업 '주식회사 소트뉴인터내셔널' (대표 장서린) ▲어린이용 조립형 가구 개발기업 '킨더르' (대표 박주희)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에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위한 성장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청년창업기업이 민간투자자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상담(컨설팅)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설명(IR) 평가대회에 참여한 창업기획자(AC) 등을 활용해 기업 홍보와 연계 투자 유치에도 힘을 기울인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아이플렉스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유망 청년창업기업(업력 3년 내)을 선정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공간을 기존 17개사에서 21개사로 늘리고, 창업기획자(AC) 2개사를 입주시켜 기업진단과 상시 상담(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이 광주를 대표하는 창업기업을 넘어 세계적 거대 신생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잊지말아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임택 광주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의장 및 구의원을 비롯한 동구 13개 주민대표와 어린이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귀어 희망 도시인, 어촌계 직접 만나 노하우 전수 받는다

'전남귀어 스몰엑스포' 17일 목포해양대... 우수 어촌계 14곳 참여

오는 17일 목포해양대에서 전남으로 귀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등의 도시민 귀어인과 전남의 우수 어촌계가 만나는 장이 열린다. 전남도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석 의사를 밝힌 200여 명의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9개 시·군 14개 우수 어촌계장·부녀회장 등을 직접 만나 귀어 조건, 빈집·일자리 등의 정보를 얻고 귀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5일 "해양수산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목포해양대 체육관에서 '2024 전남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귀어 희망 도시민에게 어촌계 진

입 문턱을 낮추고 빈집·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직접 만나 상담하며 귀어 절차를 본격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 보성, 영광, 해남, 강진, 완도, 고흥, 함평, 진도 9개 시·군 14개 전남 우수 어촌계가 참여한다.

여수 금봉어촌계 '굴 패각 디자인 체험'을 비롯해 귀어귀촌종합센터, 전남씨그랜트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도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귀어인을 반긴다. 전남의 우수 귀어인 장문석·정종훈·정근영·박민호 씨 등도 참석해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자체 누리집에 20여 우수 어촌계의 빈집과 일자리, 귀어 조건 등을 게시하고 있다. 귀어 희망 도시민이 요청하면 해당 어촌계의 빈집, 일자리, 귀어 조건 등을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또 14개 참여 어촌계는 '중회원제'를 도입해 어촌계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고, 귀어 희망 도시민은 '어촌계와 귀어인의 상생계약서'를 작성해 귀어에 따른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는 개최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전남 귀어를 바라는 도시민 200여 명이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조류 보고' 전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급

기능성 식품 개발 시스템 구축·외해 양식 기술 도입 등

해조류의 보고인 전남도가 기능성 식품 및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해조류 생산을 위한 신규 양식장 발굴, 수심이 깊은 외해 양식 기술 도입 및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전남이 글로벌 해조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은 15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조류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남의 과제'를 발간해, 전남 수산업의 주력 품목이자 산업적 활용성이 높은 김, 미역, 다시마 중심의 기술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남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통해 해조류 양식과 가공기술 규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들을 도입하는 등 해조류가 식품은 물론, 환경, 에너지, 산업소재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으며, 국내에서도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바이오인크, 생분해성 포장재,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해조류 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는 전남은 산업적 활용성이 높은 김, 미역, 다시마를 주요 전략종으로 삼고, 해조류 생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

다는 것이다.

또 전남 해조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과 해수 온도 상승에 대응해 수온 및 해역 조건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기능성 식품 및 신약 원료 연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남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영양염 부족에 따른 김·미역 황백화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염이 풍부한 고흥 시비제와 같은 생리활성 비료 개발과 해조 수출제품의 다양화·현지화 등 육종 기술 개발 가속화를 제시하고, 해조류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품질 표준화 및 다른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옥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 가공품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마른 김 위주의 단순 가공품 수출에서 나아가, 물김, 조미김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김 제품 개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어장 입지 선정, 신규 어장 확대를 위한 전통 수산 관련 산업 종사자 대상 스마트-외해양식산업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전남 해조류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무주택청년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9~28일 희망자 접수... 100명 선정 1년 최대 200만원... 최장 4년 지원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무주택청년 100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

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 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